

국민연금 개편 논란... 야권 '맹공'

문 대통령 "국민 동의·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은 결코 없을 것" 진화

정부가 보험료를 더 오래내고, 국민연금은 더 늦게 수령하는 방안으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려 한다는 국민연금 개편 보도 논란과 관련, 야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3일 이와 같은 논란에 "폭탄 돌리기식 대책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3년 앞당겨진 2057년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료를 인상 전망까지 나오면서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그야말로 최저임금 폭탄, 전기요금 폭탄에 이은 국민연금 폭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의 무능과 경제실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폭탄 돌리기식 대책이나 다름 아니다"라며 "정부가 국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기에 앞서 먼저 해야 할 일은 국

민연금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최근 5년간 평균 수익률 5.18%였던 국민연금 수익률이 금년 0.49%로 바닥을 치고 있는데 정부에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뿐만 아니라 스튜어디스 코드 도입으로 국민연금이 정부의 싹지돈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연금사회주의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국민을 위한 집사'인지, '청와대를 위한 집사'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며 "국민연금을 정권의 입맛대로 운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국민연금 도둑방지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른미래당도 비판에 나섰다. 김관영 비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소한의 공론화도 없이 무작정 더

오래,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으라는 건 책임 있는 당국의 적절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의 노후생활 안전망이자 최후의 보루다. 사실상 '강제가입 의무를 지고 있고, 지금도 50대 퇴직 후 연금수령 개시 시까지 적절한 수입원이 없어 고통 받는 사람이 많다'고 운을 폈다.

그는 "과거 예측치보다 고갈 시기가 빨라질 것 같기 때문에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한다"며 "그러나 이렇게 국민적인 의견처럼 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본격적인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가 책임감을 갖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진화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다"며 "일부 보도 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면,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 돼 있는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의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과정까지 거쳐서 결정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개편은 노후소득보장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또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재정추계위원회·제도발전위원회·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자문위원회 내부에서 논의된 방안들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비난 여론이 이어졌다.

/김영태 기자



하림, 닭고기 가공제품 필리핀 시장에 본격 수출

(주)하림이 '용가리치킨' 등 가공 완제품을 필리핀 시장에 본격 수출한다고 13일 밝혔다.

하림이 필리핀 시장에 진출할 제품은 출시 19년째를 맞은 하림의 장수 브랜드 '용가리치킨'을 포함해 '치킨 너겟', '치즈스틱'과 같은 열처리 냉동제품과 레토르트 '삼계탕' 등이다.

특히 '용가리치킨'은 한국에서 판매되던 용가리 캐릭터가 그려진 패키지 그대로 필리핀 현지에서 판매된다.

하림은 올해 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우리 삼계탕과 가공육산물을 필리핀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필리핀 식약청(FDA)과 검역 위생 협의를 완료하자 필리핀 진출을 적극 추진해왔다. 하림 제품은 지난 7월 말 통관을 완료하고 마닐라를 비롯한 필리핀 대도시를 중심으로 본격 판매될 예정이다. 이로써 하림은 동남아 시장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하림은 1985년에 처음 일본에 삼계탕을 수출한 이후 미국과 중국, 대만, 호주, 싱가포르 등으로 수출 시장을 넓혀왔다.

하림 '용가리치킨'은 닭고기 살과 바삭한 튀김 옷이 어우러져 풍부한 피삭을 제공하며 비타민이 풍부한 파슬리와 Ca, DHA, EPA 등 영양소를 첨가해 영양의 균형을 고려한 제품이다.

/익산=우병희 기자

가뭄 피해 최소화 '온 힘'

농어촌공 전복본부, 대책 상황실 설치 등 역량 집중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연일 지속되는 폭염의 극심한 가뭄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가뭄 대책 상황실 설치, 휴일 없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 가뭄 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장기간 이어진 폭염으로 인해 전북 지역 강수량이 평년보다 극히 저조(최근 2개월 누적 강수량이 324.3mm에 불과하여 평년(489mm) 대비 66%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8월 강우량 역시 평년(277mm)보다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 가뭄해갈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무 강우시에도 영농기에 지장 없이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자체적 용수확보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연간 10억여톤의

용수공급능력을 갖춘 금강의 나포양수장(8대, 23m/sec), 서포양수장(8대, 26m/sec)을 주 야간 최대 가동하여 용수공급(20,026ha)에 노력, 주요 하천 및 배수로 담수를 재활용하고 있다.

또한, 하천비파 파내기로 하천수를 확보, 전복도내 10개 지사가 보유한 한해장비(양수기 127대, 양수호스 11.3km 등)를 총동원하여 단 한 방울의 퇴수도 억제하여 최소한의 물도 아끼고 있다.

박종만 전북지역본부장은 "계속되는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버려지는 물을 최대한 재활용하고 도내 평균저수량이 30%대에 있는 저수지물의 유출량을 최소화하여 가뭄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가뭄이 일상화된 이 시기에 전복도민들은 물을 절약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주기"를 당부 했다. /김영태 기자



익산시는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 호평 받고 있는 익산 햇배가 14일 대만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출길에 오른다고 13일 밝혔다.

'인기 좋은' 익산 햇배, 수출 본격화

오늘 대만을 시작으로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 호평 받고 있는 익산 햇배가 14일 대만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출길에 오른다.

이번 수출되는 햇배는 원황 품종 17톤으로, 품종별로는 원황, 화산, 신고순으로 캐나다, 대만, 하와이 등에 약 650톤을 수출한다.

주로 금마면과 낭산면 일대에서 재배되는 익산배는 60농가 65ha에서 연간 1,600톤 정도 생산되고 있으며 원황, 화산 등 국내육성 품종은 선도적 재배품목으로 수출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익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배 우리품종 명품 브랜드를 육성하고 생산, 선별, 유통의 일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배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을 2020년까지 3년간 추진한다.

/익산=우병희 기자



농협은행 전북본부 직원들이 지난 10월 1박 2일 일정으로 무주 수락팜스테이마을 찾아 농촌관광을 체험, 팜스테이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다.

무주 팜스테이마을에서 몸·마음 '힐링'

농협은행 전북본부 직원들 수락마을에서 농촌관광 체험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직원들이 지난 10월 1박 2일동안 무주 수락 팜스테이마을 찾아 농촌관광을 체험, 팜스테이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 몸과 마음이 힐링되는 시간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최근 폭염과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경제에 활력을 넣고 농촌의 소중

하고 깨끗한 자연환경과 전문문화 등을 직접 체험, 농촌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실시 됐다.

직원들은 수락마을 물고기 잡기, 물놀이 등을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전국 대표 청정 지역인 무주 반하늘의 별을 보며 모처럼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장근 본부장은 "도시민들이 도시생활의 지친 몸과 마음을 청정자연과 농촌문화 체험으로 치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팜스테이(Farm Stay)마을은 농사와 전문문화, 마을축제 등에 도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숙박문화가 결합된 복합 관광마을로 전복에 19개, 전국적으로 290개가 운영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장기화된 폭염

농가소득 안정화

전북농협, 지역본부서

소득 증대 시군지부 회의

전북농협은 지속적인 폭염으로 농가경제의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13일 지역본부에서 '농가소득 증대 추진 시군지부 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 폭염피해 증상과 대응요령 범 농협 지원대책 설명, 농정현안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재도 본부장은 "살인적 폭염과 가뭄으로 농업인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농가소득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피해가 없도록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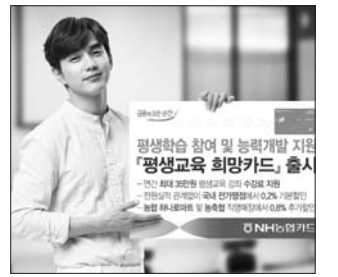
전북농협은 지속적인 폭염으로 농가경제의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13일 지역본부에서 '농가소득 증대 추진 시군지부 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노력하자"고 참석자들과 다짐하며 말했다.

한편, 전북농협은 재해복구자금 465억원 편성, 양수기 및 펌프 420여대 신속공급 농업인 행복클러스터를 통해

고령 농업인 피해상황 점검 보행 보조기 1,040여대를 보급, 폭염피해 방지를 위한 영농장비를 지자체와 협력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

'평생교육 희망카드' 출시

교육부 등과 협약 체결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만25세 이상 저소득층의 평생학습 참여 및 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지난 3일 '평생교육 희망카드'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평생교육 희망카드'는 체크카드 형태의 전자 바우처로 1인당 연간 최대 35만원 이내에서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를 지원한다 밝혔다.

또한, 국내전가맹점 이용시 전월 실적 관계없이 기본 0.2% 할인 제공, 농협 하나로마트(농협몰 포함) 및 농축협 직영매장 이용 시 0.8% 추가 할인도 가능하다.

카드 발급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사전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에 한하며, 전국 NH농협 영업점 및 NH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김장근 본부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도입과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